

文의彫刻은比較的의線이 굵은便이나 流麗한手法이다 左手는臍前에서右手는肩上에서一條의蓮줄기를 쥐고 있는點이特히注目되었으며左膝上에올려놓은右足과兩手의表現은 매우寫實的이었다。蓮華座는仰蓮單瓣으로서磨滅이甚하다。佛像의相好와衣文및蓮華等の手法으로보아年代는麗初로推定되며이렇듯巨作인類例로서는優作이라고생각된다。上記한바와같이이佛像은 모든點에서如來像의型式을具備하고있으나蓮줄기를 쥐고 있는例가如來像에서는없으므로앞으로의研究結果가注目된다。

現在이곳은寺境에서그리멀지않은곳으로石澗을즐기는道風客의來往이찾아앞으로의保存策이講究되어야할것이다。(一九六五年三月二日調査)。

實測值(m) 肩幅二·六 胸幅一·二

坐高五·一 膝幅四·五 膝高一·一

龕形幅四·八

## II

### 百濟交友錄

金 載 元

一九四五年十月初解放의벽찬기쁨에서아직도回復되지않을때는美軍中尉一名軍曹一名과 밀차와四分之一트럭을 물고扶餘로출달하였다。博物館은美軍政廳의손에移管되고그責任을지게된筆者는戰爭末期扶餘와慶州博物館에疎開되었던陳列品の서울移送과扶餘博物館의管理問題를研究하기爲하여當時美軍政廳의文化關係者와같이가게되었던것이다。

이것이筆者가洪館長을만나게된처음이고우리의交友는이때부터

始作되었던것이다。

洪思俊氏는扶餘가남은唯一한生存하시는「百濟人」으로그가없었던들扶餘에서의百濟의모습을찾을道理도없었을程度로扶餘에는百濟의文化와遺物을애끼는사람이적었고山골짜기와밭고랑에숨어있는많은文化財를發見하는데獻身的인努力을하여왔다。

洪館長은비록시골에서博物館을지켜오면서도가슴에는恒常靑음을간직하고있었다。恒常音樂을즐겨하여서分分이애긴돈으로蓄音機를사놓고洋樂을홀로즐기곤하였다。그런데六·二五때이蓄音機는掠奪되고말았다。

그러나還舊를맞이하는樂天家인洪館長은白馬江의船夫의노래와바람에올리는扶蘇山の소나무소리를벗으로아직도每日百濟기왓장을드러다보고있다。「우리나라古代美術은百濟로서 으뜸을삼는다」고

### 百濟史와 然齊 洪思俊 先生

李 弘 植

洪思俊先生을扶餘에서처음보인것이一九三四年여름이었다。내가大學三學年때에論文을쓰다말고實地踏査로한여름南韓一帶를돌아다닐때이었다。洪先生은그때郡廳에계시면서博物館을擔當하고계셨다。다같이三十多채못된나이었다。그때부터洪先生은百濟史에熱心이었다。같이扶蘇山을돌아다니며百濟의이야기가그칠줄몰랐다。지금내일범에는그때博物館앞에서찍은先生の靑年の모습이조그맣게나마남아있다。시골서冊求하기어려운恨嘆을하셨다。高麗史한질있으면하여東京에돌아가면求해보내기로하였다。그당시日本에는圖書刊行會本이比較的싸고흔하게古書肆에보였다。이것을求해보냈더니두고두고고맙다고하셨다。都會地사람은시골사람에게冊을좀달아求해주어야겠다고항상말하셨다。그후서로 더욱親해